

구세군 '자선냄비', 사랑의 온도탑, 복지단체들의 송년행사 등 올해도 어김없이 낯익은 세대의 풍경들이 등장했다. 또 한해가 저물어감을 알리는 우리 사회의 세월을 배웅하는 방식이다. 연례행사처럼 펼쳐지는 이러한 행사들이 올해는 경기가 침체되어 성과가 있을지 걱정이지만, 나눔과 울림을 생각하는 시들지 않는 정성들만으로도 마음에 온기가 느껴진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벌써 대기업들이 거액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했다는 소식도 있고, 익명의 기부자들이 성금을 기탁하고도 그 이름을 숨기려는 애뜻한 미담도 전해진다. 나라는 개인이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힘들 때 서로 돕고 의지하는 우리네 미증양은 아직 변하지 않은 듯 하다.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지성과 양심을 실천하는 순수의 미학이다. 거기에는 무슨 이익과 반대급부를 생각하는 불순한 의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의상관(相依相關) 관계의 우주적 이치를 실천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로 되어 있다. 어느 것 하나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서로 이웃하지 않으면 생존도 문화도 갈구할 수 없는 인간이, 인간을 돌보는 것은 휴머니즘의 출발점이고, 모든 종교의 태



불자 세상보기

장지현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연말, 당신의 체온은 몇도?

줄이기도 하다.

오락의 세상. 어둠 속에 갇힌 등불이 더 뜨거운 것처럼, 삶이 각박하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작은 온정이라도 그 향기는 진동한다. 거액의 풍량이 기부도 필요하지만, 역시 자선은 작은 사람이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작은 사랑, 익명의 나눔, 그것은 세상을 여는 문이다. 열쇠도 모자라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되는 세상의 문들이지만 익명의 기부자들처럼 남 몰래 세상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들도 있다.

지난 한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

고, 실질적인 빈곤층도 다시 늘어났다는 통계를 접한다.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어 전체 국민의 5%가 전 국토의 2/3를 소유하고 있고, 전체 은행 고객의 2%가 전체 저축액의 56.7%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그런가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 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생계형 자살'로 내몰리는 실질빈곤층이 3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나라 경제를 되살리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이요 기업인들의 수완인지 모르나, 이 어려운 세

상을 살맛나게 하고, 희망의 새싹을 틔우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의 몫이다. 달마가 양무제에게 '무공덕'이라고 한 것처럼 사진 찍고 소문만 내는 것은 진정한 자선이 되지 못한다. 자선이 복전이 되는 것은 무주상 보시이기 때문이고, 왼 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 역전'이란 유행어를 낳으며 몰아쳤던 로또 열풍은 2년 동안 434명의 한국판 백만장자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이중 총36명의 당첨자가 64억여원을 기부금으로 사회에 회향하였다고 한다. 2004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당첨금 규모는 축소되어 1인당 평균 기부금은 줄어든데, 기부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한다.

힘들수록 고통을 나누고 익숙수록 고개를 숙이려는 것이 우리의 교육방식이다. 헬빙도 좋고, 해외여행도 좋지만 '카드빚 20만원'에 시달려 자살하는 우리들의 이웃인 생계형 자살자들을 생각해 보자.

물고기들도 목마를수록 거품을 뿜어 서로의 갈증을 달래주는 것이 그 진화의 본능이다. 종교인들의 자원봉사가 수행의 차원에서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나눔과 베풀음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빈부격등의 틈새가 메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조계종 포교원이 별원 설립 10주년을 맞아, 앞으로 1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포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별원으로 발족한 지난 세월의 성과를 정리하고 포교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꼭 있어야 하고, 또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여러 계획을 가운데는 그 실천을 위한 대안들까지도 마련되고 있는 것들이 많은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박희승 차장의 '수행 플러스 포교전략' 발표 가운데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계획을 주려낸 것이다"는 말은 포교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조계종 신도 정체성 확립', '종단 포교행정시스템 구축-직할교구 행정시스템 구축', '포교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화',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등은 분명 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지금도 진행은 되고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이 확실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포교도 '백년대계'

예를 들어 '법회 의례의식의 개선 및 한글화' 전략을 보기로 하자. 한글화란 의식을 위한 통일적인 요점이 없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전근대성을 대변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한글시대에 맞는 포교의 지향점과 방침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방침이 정해지고 나면 통일된 의식의 제정과 종단 내부의 통일된 사용을 위한 구체적 시행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며, 현장에서의 실행까지도 점검하는 총체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분명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포교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또한 포교원이 하나의 불교단체나 합법한 일에 직접 나서서는 안된다는 것도 포함된다. 포교원이 올바르게 큰 틀을 짜면, 그 위에서 아름다운 포교의 꽃들이 피어날 수 있게 된다. 포교원의 할 일은 바로 그 큰 틀을 짜는 일인 것이다. 원장님 이하 이 미 그러한 자제로 임하고 있다고 믿지만, 혹 조금씩 기사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의 입력에 굴하지 말고 깨끗하게 올바른 포교의 대계를 이룩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둔다. **■ 성대웅(간국대 철학교 교수)**



이렇게 들었다 자비의 삶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아끼듯이 모든 삶이 있는 것에 대해 한없는 자비심을 내라. <순타니파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에서 한국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다. 41개국 가운데 1위는 2위, 수학은 3위, 문제해결능력은 1위를 차지했다. 늘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받아온 교육계는 모처럼의 '쾌거'를 즐기는 분위기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각국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위권 성적을 낸 독일의 한 교육단체장은 한국의 혹독한 공교육과 엄청난 사교육비 투자 등이 좋은 성적의 원인이라는 시선어린 주장을 하는가 하면, 국내 일각에서는 최상위층이 줄어들며 점차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인구가 부족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베를린 위고니에 OECD 교육국 부국장은 한국의 성적에 대해 평균화정책의 영향 탓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공부 잘 하는 학생이 옆에 있으면 못하는 학생이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 성적은 물론 장애 여부에 따른 구분도 하지 않고 모두 한 교실에서 공부시키는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근거 없는 주장은 아닌 것 같다.

같은 시 ·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은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연법의 원리가 온 우주에 인드라마가 되어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옆 친구도 열심히 하듯, 내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그 따뜻한 마음은 일파만파 세상에 퍼져갈 것이다.

이 추운 세상을 따뜻하게 나는 비결, 그것은 내 안에 있지 않을까. **■ 박익순(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사찰도 영수증 발급했으면

매년 이맘때가 되면 급여 생활자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쓴다. 그러나 급여생활자 중 불자들은 세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나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나 성당에 기부금을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불자들은 산에 갔다오다가 사찰이나 암자가 있으면 참배하면서 시주금도 냈기도 하고 성지순례, 어른스님들의 법회 등으로 사찰을 찾을 때마다 부처님전에 시주금을 넣기도 해 영수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재적사찰에 시주도 하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등산이나 관광시 사찰이 있는 곳에 참배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참배할 때마다 작게는 1~2만원씩, 또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등 전각마다 참배하고 시주하는 경우도 있다. 사장이 이렇다보니 진정으로 세금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한 사찰에 시주한 것은 소액일지 몰라도 1년동안 시주한 금액을 합산해보면 상당한 금액에 달한다. 얼마 안되는 금액을 시주하면서 그때그때 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시주할 때마다 봉투에 주소 성명을 쓸 수도 없다. 따라서 불교계 종단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각 사찰에 통일된 양식의 영수증을 비치토록하여 재적불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시주할 때에는 그자리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한다던 불자들이 연말정산시 번거롭지 않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김광수(조계종 홈페이지)

성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머칠것 서을 인사동의 한 음식점을 갔다가 석탑이 정원에 있는 것을 봤다. 음식점 주인에게 왜 석탑이 그 곳에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회피했다. 따지고 보면 이런 경우는 많다. 조선의 궁궐이었던 경복궁 뜰에 있는 석조 문화재는 대부분 사찰에서 가져온 탑과 부도들이다. 이들 탑과 부도는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대상이거나 추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성보물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는 관광거리로 지나지 않는다. 성보가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불자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더욱 심각한 점은 불교계 내에서도 이런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법당에 있어야 할 불상과 탱화가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성보박물관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다. 제자리를 떠났으니 이미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관광거리가 되어 박물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든 성보든 제자리에 있어야 참 가치가 있음을 상기했으면 좋겠다. **문석천(경기도 고양시 행당동)**

불교가 통일 밑거름 되길

남한 각 종단과 대북교류단체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측이 만남을 제의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 당국과의 대화는 결색되어 있지만 종교계, 문화계 등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불교계만 보더라도 다소 경색된 정치 환경에 비해 교류가 활발하다. 신계사 복원사업이 순항하고 있고, 개성 영동사 복원사업도 마무리 단계다. 또한 불교사회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도적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불교 교류현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상생(相生)과 불이(不二)를 실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중의 하나가 바로 통일의 문제다. 국민의정부 시절 상당한 변화발전을 거듭했지만, 최근에는 '핵'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된 것이 사실이다. 이럴수록 남북불교문화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꾸준히 교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역사적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통일과 상생의 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교류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시적이 불과하다. 느리지만 내실 있는 교류를 위해 지금부터 모든 불자들이 마음을 모아 한걸음 한걸음씩 내딛어 가자. **박익경(남양주시 호평동)**

'연대' 민영

심민섭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삼사순례 및 방생도량

귀의 삼보하옵고, 해수관음도량인 **해동용궁사**는 앞은 푸른 바다요, 뒤는 산으로 **삼사순례나 방생법회** 하는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전국의 佛子님께서는 乙酉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많은 공덕을 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www.yongkungsa.or.kr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전화: 051) 722-7744, 7755

- ◀ 대형 주차장 완비
- ◀ 입장료 무료
- ◀ 점심공양 가능
- ◀ 방생을 배달해 드립니다

이것이 명품이다!

명품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는 산삼배양근이 함유된 제품으로써 그 효능과 품질로 말합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 시음 무료체험

전화주시면 일천분에 한하여 심마니토종오가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체험의 즐거움과 건강의 기쁨을 누리보세요.

심마니 토종 오가피

중년의 건강과 활력을 부모님에게는 건강한 노우를 자녀에게는 몸과 정신을 튼튼하게 가족 건강이 행복의 최우선입니다. 심마니 토종오가피가 지켜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무료자료배송 02)455-1114 **주현풍F&B** HYUN PUNG F&B CO., LTD.